

水害의 상처, 깨끗이

寄協진료반, 全南수재민 6백여명 진료 구호품 전달등 방역활동도 활발히 전개

수마의 사나운 발톱에 가산과 처자식을 앓기고 농사마저 망친 수해민들은 실의를 의지와 신념으로 휘어 꺾고 일어서 이제는 그 피해 복구를 마무리 하고 있다.

지난 8월말 60년래의 집중 폭우는 영산강을 범람 시켰고 곳곳의 제방은 「메카톤」급의 홍수로 붕괴되어 전남도내에서 수재민 2만 4천 1백 3명과 사망 7명, 실종 68명, 가옥 4천 9백 51동이 전파 또는 반파 됐으며 곡창 나주 평야가 순식간에 물바다화하는등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한국 기생충박멸 협회는 이같은 비보에 제빨리 전남지부 이견영 사무국장을 반장으로 한 수해민 진료반을 긴급 파송토록 지시했다.

전남지부는 김병우 부설 의위 원장을 비롯한 김상병리사 6명으로 진료반을 구성했다.

진료반은 9월 6일 상

오 8시 수해 우집지구를 5일간 순회 하기에 앞서 전남도지사에게 세탁비누 5백장을 구호품으로 전달했다.

각종 의약품을 「엠부렌스」에 만제한 진료반은 도 보건과 간부들의 환송을 받으며 첫 「코스」인 나주군 다시면 조동부락에 도착했다.

수해 현장은 한마디로 황폐 그대로였으며 물이 빠진 들과 마을은 수마의 잔해가 더욱 수해민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마을 우물은 인분과 배지 우리등 가축 사육장의 오물로 오염됐으며 이 불결한 우물물을 식수로 사용할수 밖에 없었던 수해 주민들은 심한 배탈과 설사로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더더구나 탁류 속에서 사투해온 이곳 수해민들은 접촉성 피부염과 노숙으로 인한 유행성 독감까지 번져 진료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었다.

신선한 음료수 공급이

절대적이라고 판단한 진료반은 이마을 예비군의 힘을 빌어 「엠부렌스」로 8킬로나 떨어진 나주읍까지 나가 식수를 10여 차례나 날라 수해민들에게 공급했으며 밤이 깊을 때까지 3백26명의 수재민에 대한 일반 진료와 3일분씩의 약까지 지급 했었다. 또 우리 진료반은 「텐트」속에서 기거하는 수해민의 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나주군 보건소와 합동으로 방역을 실시했고 「암모니아」로 오염된 마을 우물 20여개소를 소독 하기도 했다.

이견영 사무국장은 나주 다시국민학교 이재 학생들이 교과서와 책가방을 유실한채 맨손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호주머니를 털어 「노트」 2백권을 이재 학생들에게 전달, 수업을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그리고 진료시 증환자는 응급 치료후 전남대학병원 등 큰 병원으로 7명을 후송 시키는 활발한 구료 활동을 2일간 전개한후 다음 순회지인 영암면 학송리로 달렸다.

나주보다 피해를 적게 입은 학송리는 군관민이 일체가 되어 수해 복구에

구출함을 홀리고 있었으며 김연수 영암군수가 우리 진료반을 마을 회관까지 안내 해 주었다.

입시 진료소가 된 마을 회관에는 진료 받기 위한 수해민들로 붐비고 있었다. 이들 수해민은 대부분 조석으로 급변하는 기온 때문인지 호흡기 질환자가 많았고 피부가 심히 부풀고 무좀으로 발가락 상처가 터진 환자들로 전남지방에서 가지고간 무좀약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이날 진료반은 점심까지 거르면서 1백 65명의 수해민을 진료 했으며 결핵보균자 2명을 발견 보건소에 등록 시켰다.

영광군 군서면 덕산리에서는 새마을 지도자 신규담씨의 친절한 안내로 1백 91명의 주민을 진료 했다.

특히 3년 전부터 「페티스토마」에 감염되어 각혈을 하고 있는 강천석씨를 치료 해주는등 5일간 수해민 순회 진료를 끝마쳤다

우리 진료반은 5일동안 일반진료 6백명과 3천 3백 26명의 수해민에게 기생충 검사와 투약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번 수해는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비극을 낳기도 했지만 반면에 의타심을 버린 자력 복구의 기치와 협동심의 위력을 보여 주었고 전국민이 부어준 온정은 종화물 다진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본 협회 전남지부 金致洙記>

교원병(膠原病)이란 ?

교원병이란 병명은 1942년 미국의 병리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이름이 지어졌다. 최근에는 의사들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에게는 생소한 병 이름이다.

교원병이란 급성 류머티스열, 류마티스양(樣)관절염, 또는 급성 중만성 낭창(紅斑性狼瘡), 피부근염(皮膚筋炎), 공피증(鞣皮症), 그밖에 결절성 홍반(結節性紅斑) 등이 교원병 부류에 속한다.

교원병 부류의 병들은 모두 특유한 피부증상을 나타낸다. 그래서 환자들은 피부병으로 생각하고 피부과 의사를 찾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병들은 발열, 관절통, 출혈, 또는 정신증상들이 나타나니까 늘레시내과, 정형외과, 정신신경과등을 찾기도 한다.

또는 교원병은 세균감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염증(感染症)으로 오진(誤診)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교원병은 화

학요법으로는 낫지 않는다. 때문에 교원병의 원인은 세균 감염 이전에 한개의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냐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또 교원병은 피부증상이 뚜렷한것은 얼론 진단이 되지만,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이상한 증세도 많다.

치료법은 조기(早期)에는 부신피질(副腎皮質)을 문제의 내복이 효과가 있으나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혈액, 뇨, 기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치료를 해야한다.